

[소제목1: 내가 가장 먼저 놓친 위험]

한국전력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안전이다. 작업계획서를 다시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뒤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과정은 아무리 익숙한 현장이라도 절대 생략하지 않는다. 작은 방심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정작 사람을 바라볼 때만큼은 안전보다 익숙함을 먼저 믿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작업이었다. 현장에 도착해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작업 전 점검을 위해 다가왔다. 처음 마주한 순간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관리자가 짧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전기 현장에는 대부분 남성 기술자와 남성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다. 그래서 여성 안전관리자를 본 순간 무의식적으로 ‘현장이 쉽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짧은 생각 하나가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성별과 직무를 연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작업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필요한 장비도 모두 갖춰졌고 작업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갑자기 작업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작업 구역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작은 위험요인을 하나 짚어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서두르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차분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봐야 했던 것은 안전관리자의 성별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는 눈이었다. 현장을 멈춰 세운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 ‘여성 안전관리자’라는 표현은 조금씩 ‘안전관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소제목2: 작업을 멈춘 사람]

작업은 위험요소를 제거한 뒤 다시 시작됐다. 현장은 금세 평소의 흐름을 되찾았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잠시 작업이 지연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전 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위험이 아니라 누구나 괜찮다고 넘겨버리는 작은 위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안전사고는 거창한 실수보다 사소한 방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날 작업을 멈춘 이유도 거창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대부분이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위험 하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안전관리자를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할 때도 누구에게는 강하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약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상대가 선배인지 후배인지보다 작업 절차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했고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장에서는 작업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그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동안 안전관리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현장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날 현장에서 다시 배웠다.

돌이켜보면 내 편견은 아주 특별한 생각도 아니었다. 그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익숙함에 가까웠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남성이 많은 직종에서는 남성이 더 잘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했고 여성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먼저 걱정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런 생각을 전혀 증명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가장 신뢰하게 된 사람은 성별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였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여성 안전관리자’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기억만 남았다.

[소제목3: 바뀐 것은 현장이 아니라 나였음을]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날의 작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위험요소를 발견해 작업을 멈춰 세운 장면도 떠올랐고 원칙 앞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던 모습도 계속 생각났다.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작업이 아니라 내 첫인상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심코 했던 ‘여성이라 현장이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누구도 그런 말을 내게 가르쳐 준 적은 없었다. 그저 오랫동안 남성이 많은 현장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굳어진 인식이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쳤고 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날 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만 다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던 익숙한 편견도 함께 발견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먼저 점검했어야 할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집에 돌아온 뒤 문득 여동생이 떠올랐다. 평소 자격증 공부를 좋아하는 여동생이라면 안전관리자라는 직업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선뜻 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기 현장은 힘들고 위험한 곳이라는 이유를 먼저 떠올렸을 테고 자연스럽게 다른 직업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안전관리자의 가치는 무거운 장비를 드는 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위험을 먼저 발견하는 관찰력과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멈춰야 할 순간을 주저하지 않는 판단력이 더 중요했다.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여동생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번 도전해 봐.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여동생만을 향한 응원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 남아 있던 고정관념과 작별하는 인사이기도 했다.

전기 현장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작은 위험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이 결국 모두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 원칙이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별이라는 익숙한 기준으로 누군가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일 역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일 수 있다. 그날 한국전력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멈춘 것은 안전관리자였지만 내 안의 편견을 멈춰 세운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경험 이후 나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성 안전관리자’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 현장을 지키는 사람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안전관리자였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특별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별보다 실력과 책임감으로 바라보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날 현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배웠다.